



박근철 교수 분취의학상 수상

폐암 관련 국제적 임상 주도...한국 폐암연구 우수성 알려

박근철 성균관대 내과학교실 교수가 제27회 분취의학상 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이십여 년에 걸쳐 폐암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임상 연구를 실시해 국내 폐암연구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는 국내 연구자로서는 최초로 연구자 주도의 국제 공동 임상 연구에 초빙 참여해 폐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의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박 교수와 연구팀은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폐암 재발율이 약 30-80%에 이른다는 사실을 도태로, 근치적 절제술 후 시스플라틴(cisplatin)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 및 5년 무병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도 동양 환자에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적절한 치료기간을 확인하는 국내 최초 연구자 주도의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배정 3상 연구(J Clin Oncol 2007), 편평상피세포 폐암종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연구(J Clin Oncol 2013), 근치

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법에 대한 연구(J Clin Oncol 2015),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서 1세대와 2세대 표적치료제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Lancet Oncol 2016)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박 교수의 다양한 연구 업적과 활동들은 여러 암종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폐암에 대한 유의미한 치료 기준을 국내외 의료진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박근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발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망률이 높은 폐암 연구에 더욱 매진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후배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분취의학상은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한국 의학계의 학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취' 박사의 이름을 빌어 지난 1990년 제정됐다.